

GOOD

morning
good bedding

evezary magazine
June 2014

vol.96



Good Morning, Good Bedding

evezary magazine June 2014 vol.96

02

Main Issue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다

10

Social Issue
이브자리 '홈코디실무자격'

18

People
청춘의 열정,
서로를 응원하다

29

Interior
My Little Garden
초록 식물로 꾸민 나만의
힐링 공간

44

Gallery
황찬수 개인전
색채의 향연

04

Main Issue
시원함을 덮자!
이브자리 쿨쿨 페스티벌!

12

New Open
대리점 소식

22

Interview
수면에서 숙면으로의
여정을 돕는다

34

Health
보는 축구, 뛰는 축구

46

Goods
양말의 변신은 무죄

06

Main Issue
개인 맞춤형
수면 전문 브랜드
'슬립앤슬립'

14

Atrian
아프리아 스토리

24

Together
아이를 위한 아빠의 마음,
천연비누 만들기

38

Recipe
간편하게 먹는 차가운 별미
파스타 프레다

47

Keyword
보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

08

Social Issue
이브자리
품질혁신대회 & 기능경진대회

16

On Air
더욱 뜨거워진
인기 절정 화재의 드라마
이브자리 ON AIR!

28

Talk
파랑새 증후군에 대처하는
직장인의 자세

40

Culture
세계 문화
인스턴트 기행

48

Emotion
잠자는 집속의 아이

발행일 2014년 5월 30일 발행 (통권 제96호 6월호)
발행처 (주)이브자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49-7 (휘경동)
발행인 고춘홍
담당자 마케팅본부 이정인(02-6490-3206)
제작진행 마인드,마인드(02-308-0082)
기획 및 편집 김유석
디자인 김민정, 서미선
뷰티 스타일링 이은실
사진 최용(studio YH)
인쇄 예인미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6월에는 월드컵 개막이라는 큰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듯하다. 벌써부터 뜨거운 응원을 기대하며 가슴 설레는 이들도 상당할 것이다. 물론 걸림돌도 있다. 우리 대표 팀의 일정은 물론 각국의 빅 매치들이 새벽에서 이른 아침 시간대에 겹쳐 있기 때문이다. TV 시청을 끝내고 짧게라도 폭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안한 수면환경이 중요하다. 친환경적인 천연소재와 우수한 기능성, 부드러운 촉감의 침구라면 6월의 밤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아이스멜론 여름이불세트
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아이템.
면리플 소재는 표면이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몸에 밀착하여
감기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수면 시 쾌적함이 느껴진다.
또한 아이스멜론은 에코휘바 가공으로
청량감까지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상품이다.

Comfortable and Relax Night in June

TOP HONOR at KOREA BRAND POWER INDEX 2014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다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K-BPI)
홈패션 부문 1위
이브자리



2014년 홈패션 부문 한국 최고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바로 '이브자리'이다.
홈패션 부문에서는 독보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파워를 자랑하는 '이브자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홈패션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 K-BPI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파악, 이를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이다. 브랜드파워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무적 관점과 소비자 인지구조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재무적 관점은 기업의 자산 가치의 평가나 기업 M&A를 위한 평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로 브랜드와 관련된 구매행동 중 가격 및 준거 가격을 기초로 하여 재무제표상의 항목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반면, 소비자 인지구조 관점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자산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인지도와 충성도에 대한 영향력과 표현력을 중심으로 구매행동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방법이다. K-BPI 지수 산출은 바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브랜드 인지도(Brand Awareness)와 브랜드 로열티(Brand loyalty)를 중심으로 측정하여 산출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파워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측정하는 재무적 관점보다는 향후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이렇듯 소비자 관점에서 전 연령을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해 결과를 도출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 진단평가 제도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홈패션 부문 1위의 이브자리 선정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브자리는 '홈 패션' 부문 1위 브랜드파워 점수 741.6점으로 SPA 1위 브랜드인 유니클로(742.6점), 스포츠용품 1위 브랜드인 나이키(781.6점), 라면의 대명사인 신라면(777.0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대표 홈패션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시원함을 덮자! 이브자리 쿨쿨 페스티벌!

시원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까운 이브자리를 찾아주세요



COOL~
COOL~

무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열대야가 찾아왔다. 여름철에는 열대야로 인한 쾌적한 수면이 어렵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면이 부족할 시 심하게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도 아픈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이 때문에 빠른 발걸음으로 찾아오는 여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여름, 이브자리는 열대야를 두려워 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브자리 쿨쿨 페스티벌(에코휘바 행사)’을 준비했다. 이브자리 매장

방문 고객에게 사은품 응모 기회가 주어지고, 이브자리 여름이불 구매자에게는 선물을 증정한다. 이번 사은행사에서는 이브자리 여름이불에 사용된 에코휘바를 만날 수 있다. 에코휘바란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된 이브자리만의 시원한 여름 이불 가공법이다. 에코휘바의 천연 자일리톨 성분은 수면 중 흘리는 땀과 결합해 몸의 열을 흡수하여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므로, 더위를 많이 타는 분, 열대야에 잠들기 힘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다.

‘이브자리 쿨쿨 페스티벌’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라디오 광고와 온라인(카카오톡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브자리 여름이불과 함께 쾌적한 여름을 보내자. 🌿



시원한 여름을 위한 ‘아이스멜론’
색상 : 블루 / 소재 : 면 리플



쾌적한 수면을 돕는 ‘에코빌’
색상 : 그레이 / 소재 : 면 리플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체르빌’
색상 : 블루 / 소재 : 라미리플



천연 식물성 소재 ‘오스틴’
색상 : 블루 / 소재 : 라미리플

여름 이불은
성분부터 달라야한다!
이브자리만의
특별한 여름 상품

면 리플
가습가습하면서도 부드러운 실용적인 소재. 일명 ‘지지미’ 원단이라고 불리는 리플은 100% 순면 혹은 면 혼방 섬유를 통풍이 잘 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리플은 표면이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몸에 밀착하여 감기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쾌적한 수면을 돕고 에코휘바 가공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라미리플
라미는 기존 모시나 삼베가 주는 거친 느낌의 문제를 보완해서 시원하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어진 소재다. 천연 식물성 섬유인 마는 흡습성과 열전도성이 높아 땀 흡수와 배출이 잘되어 수면 시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라미는 기존 모시보다 발이 얇고 촉촉하게 직조돼 튼튼하면서도 감촉이 부드럽다.

Tip.

HYVAA EVENT 1.

모두에게 드리는 기회!
이브자리 매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 응모 기회를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 7월 11일 홈페이지

에어컨 1대
(LG전자 21평형)

냉장고 3대
(LG전자 디오스 815L)

선풍기 100대

HYVAA EVENT 2.

에코휘바를 사랑해 주신 분께 드리는 기회!
이브자리에서 여름이불을 구매하는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 사은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상당
구매 시
젠틀 드림 베개

30만 원 상당
구매 시
인견 지지미

10만 원 상당
구매 시
장우산





개인 맞춤형 수면 전문 브랜드
‘슬립앤슬립’



이브자리가 업계 최초로 개인 맞춤형 수면전문 브랜드 ‘슬립앤슬립(Sleep&Sleep)’을 론칭했다. 개인의 신체 특징을 전문적으로 측정하여 그에 딱 맞는 상품 추천으로 숙면을 돕는 슬립앤슬립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알아보자.



이브자리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양질의 수면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면 전문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브자리는 그동안 수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성을 더한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수면 용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슬립앤슬립의 최대 차별점은 개인의 수면습관에 맞춘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체험 컨설팅 서비스는 단계별 전문 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슬립 코디네이터’가 고객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개인의 수면 타입, 체형 및 수면 습관 등에 맞춰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제안해주는 서비스다. 슬립앤슬립매장 방문 시 경추 측정기, 체압 측정기 등과 같은 전문 도구를 사용해 개인의 체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제품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슬립앤슬립 매장에서는 이불, 베개, 매트리스와 같은 침구류 145종 외에도 최근 힐링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로마 향초, 디퓨저, 수면 안대 등

숙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품 130종 또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이브자리코디센 논현수면센터점, 삼성점, 롯데백화점 본점 등 총 8곳에 솜인솜 형태로 입점해있으며, 올해 안으로 유명 백화점을 포함해 전국에 약 60여 개 매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브자리는 향후 수면 전문매장을 통해 수면 산업을 선도하며, 수면 장애를 겪는 고객의 수면 환경 컨설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제8회 이브자리 품질혁신대회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품질혁신대회’가 지난 4월 18일 이브자리 회기동 본사에서 열렸다. 이브자리 공급처 관계자, 본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2014년 ‘품질혁신대회’의 뜻깊었던 순간을 감상해보자.



이브자리 품질혁신대회는 2004년 품질 cnp를 통해 처음 시작되었다. 본사와 파트너 업체 간의 팀워크를 다지고 다 함께 최고의 품질 달성 의지를 고취하겠다는 취지 아래 ‘하자율 0% 달성’을 목표로 뜨거운 다짐의 시간을 매년 가져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전문위원이자 NGB경영컨설팅(주) 대표인 정태호 강사의 ‘품질은 마케팅 경쟁력이다’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제조물책임법’, ‘1:10:100의 법칙’, ‘크로스비의 품질경영 14단계’ 등 이미 세계적인 기업의 적용을 통해 입증된 제도들과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품질혁신대회에 참석한 공급처 관계자와 임직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또한 이브자리 완제품 공급처인 모닝캄의 성공사례 발표도 있었다. 2005년부터 이브자리와 함께 한 모닝캄은 자수 라인 증설로 신속한 적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자수, 퀼팅, 원헤드라인 구축을 통해 윈스톱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간 이동거리 최소화로 오염 및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였으며 2009년 환경개선 우수 공급처 선정 후에도 꾸준한 설비 보강을 통해 이브자리 최고의 파트너임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올해도 ‘품질혁신대회’라는 뜻깊은 시간을 통해 교육과 반성의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써, 품질 마인드 함양과 하자 발생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내년엔 더 많은 우수 공급처의 성공사례를 통해 하자율 0%라는 이브자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제조물책임법

그 제품으로 인해서 입은 직간접의 모든 책임을 수행하는 것

1:10:100의 원칙

불량품을 예방하는데 1원을 지출하면, 평가하는 비용 10원을 절약할 수 있고, 실패 비용을 100원 줄일 수 있다.

크로스비의 품질경영 14단계

1. 경영자가 직접 가담해야 한다.
2. 품질 개선팀을 결성하라.
3. 품질수준을 측정할 척도를 만들어라.
4. 품질 코스트를 추정하라.
5. 품질의식을 확산시켜라.
6. 문제점 시정에 노력하도록 격려하라.
7. 무결점 프로그램 담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8. 감독증을 훈련시켜라.
9. 무결점 일을 정해놓아라.
10. 작업 그룹의 목표를 정해주어라.
11. 근무자 오류의 원인을 추적, 제거하라.
12. 그룹/개인의 성취를 인정해 주어라.
13. 품질 카운슬러를 설치하라.
14. 쉬지 말고 재도전 하라.

2014 제5회 이브자리 기능경진대회

올해도 어김없이 최고의 침장 장인을 가리는 이브자리 기능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인천 R&D 팩토리에서 진행되었던 경진대회를 통해 올해도 봉제 부문과 누비 부문에 기능장들이 선발되었다.

슬로건 “여러분의 장인정신이 최고의 이브자리 상품을 만듭니다” 공급처별 생산성의 객관적인 평가와 각 공급처의 생산능력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공급처 간의 생산에 대한 작업 의식을 고취시키는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4 이브자리 기능경진대회가 지난 4월 12일 이브자리 인천사옥 R&D팩토리에서 개최되었다.

종목은 누비/봉제 부문으로 이브자리 주요 공급처 직원들이 경쟁에 참여하였다. 지부별로 진행되었던 예전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본 대회에 임했지만 금세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하였다. 외부 전문가 2명, 대리점 사장 2명, 내부전문가 3명 총 7명의 심사위원들이 정확성/ 생산성/ 디자인 완성도/ 디자인 소화력/ 전체적인 조화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다.

이처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 영광에 자리에 오른 2014년 기능장은 봉제 부문 이점희(다은침장), 김현숙(명진침장), 누비 부문 오병근(경복), 진영순(삼정) 님이다. 추가 수상자로는 최우수상-박영선(에이스원),



우수상-김미순(햇님방), 장려상-손영숙(에스엠에스), 격려상-이경자(이브아트), 이은순(안새산업), 우귀순(이브스), 김유숙(본사샘플실)이다.

매년 이브자리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어우러져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이브자리 기능경진대회가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자리 잡길 희망해 본다. 

Notes

이브자리 '홈코디실무자격'

이브자리는 점포 직원 및 대리점 사장단들에게 매년 교육을 통해 판매에 필요한 지식과 상품정보의 교육을 해오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브자리의 홈코디실무자격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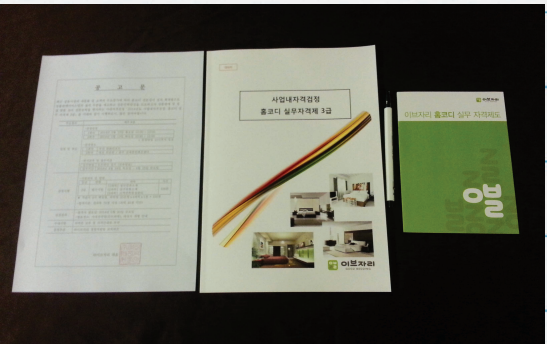
금번 이브자리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된 홈코디 3급 자격과정은 2011년부터 직영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내 검정 제도로써 금년부터 대리점에 확산 시행하였다. 이는 이브자리 대리점이 차별화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브자리 대리점 사장단 및 점포 직원들은 매년 교육을 통해 판매에 필요한 지식 교육을 습득하게 된다. 판매 지식 교육에는 상품에 대한 안내, 특장점을 숙지하고 침구소재, 속통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이 단순한 고객 응대 서비스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판매 현장에서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여러 업무들이 실행 중에 있다. 또 직영점 직원들은 국내 최초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한 홈코디실무자격을 얻어야 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홈코디 실무 3급 자격과정은 4월, 5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60명(54개점)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검정 과정을 통해 합격한 대리점은 32명(28개점)이다. 이 자격을 취득한 대리점에는 고객이 “침실 전문 컨설팅 자격을 취득한 매장으로 1:1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홈코디가 고객님의 맞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리점 內에 ‘자격인증패’를 설치하고, 이브자리 홈페이지에서 매장 검색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창에 ‘홈코디 인증마크’를 별도로 표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대리점 운영 및 판매인원들의 역량 및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매장 인력을 집중 육성할 수 있다. 대상은 직영점 직원 및 대리점 사장단에 국한되지 않고 대리점에서도 매장 인력을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점포 매니저도 자격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본 과정은 1년에 한번 시행되며, 경영지원본부 교육파트가 주관 시행하게 된다. 



홈코디실무자격 제도란?

이브자리가 직영점 점장, 점포 매니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간 시행하고 있는 사내 자격 검정 제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홈코디실무자격 자격증 및 인증패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판매 서비스 기술 향상을 위한 홈코디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인정, 사업 내 공인자격에 등록되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최고 1급부터 3급까지 있으며 제품과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는 3급의 경우 연중 2회 집체 교육을 비롯해 자사의 전문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받아 필기시험으로 획득 할 수 있다. 이브자리에서는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상담과 체험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침실 전문점으로 이브자리만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다져나가는 방안으로 금년도부터는 홈코디실무자격 제도를 이브자리 전국 대리점에 확산 시행하고자 한다.

NEW

OPEN

이브자리 CODISEN

신규

남양주마석점

주변 상가와 음식점이 있어 유동고객 확보가 용이하고, 경쟁업체가 별로 없어 신규 고객 유치가 기대되는 매장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65-3



이브자리 CODISEN

신규

부평4동점

넓은 평수로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본 매장은, 매장 점주가 이브자리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오픈한 매장으로 브랜드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점포가 예상되는 매장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9-2



이브자리 CODISEN

신규

대전노은점

본 매장은 대전지역 내 공백지역으로, 세종시와 인접하여 신규 고객 창출이 기대가 되는 곳이다. 기존 전주덕진점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브랜드 홍보 및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99-1



이브자리 CODISEN

리뉴얼

인천연수점

기존의 1층의 매장에서 2층까지 확장 리뉴얼하여 오픈한 본 매장은, 한결 넓고 산뜻한 분위기로 탈바꿈하여 인근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성공점포를 위한 발돋움을 하는 곳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00-1



이브자리

이전 리뉴얼

울량사천점

청주시 사천동 성모병원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본 매장은, 주택가 밀집 지역 주변에 위치함에 따라 많은 유동고객 및 내방고객이 예상되는 매장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20



이브자리

신규

상계2점

상계 2동 종합시장내에 위치한 본 매장은, 기존 타 브랜드에서 이브자리로 리뉴얼하여 운영되는 곳이다. 20년 이상 운영한 노하우와 폭넓은 고정고객을 바탕으로 성공 점포가 예상되는 곳이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3다길 13-8
노원아이파크상가 101-126



That's why! 아프리앙이 좋은 이유 I LIKE ATRIAN ♡

다양한 행사와 사회 공헌 활동으로
고객 만족과 나눔 실천, 직원들을 위한
행복한 문화 복지 등 따뜻함이 넘치는
아프리앙이 좋다!



가족행사 & 사회공헌

지난 5월 9일, 서울시 광진구청과 함께 광진구 다문화
가정에 이불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아프리앙의 가족
행사를 맞아해 함께 진행된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나누고자 2012년부터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서울시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외갓집 방문
후원 행사도 진행하였다. 가족행사와 더불어 지역주민,
나아가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디자이너 초청 설명회



지난 4월 19일 헤이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우수 고객들을
초청하여 '헤이마 디자이너 초청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디자이너가 직접 브랜드 컨셉과 상품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것으로 고객들에게는 단순한 상품 구매가 아닌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고객은 상품의 특징, 관리 방법 등 유용한 침구 상식들을 들을 수
있었고 디자이너는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향후 상품 개발
시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이벤트였다.

디자이너 초청 설명회 일정

2014년 5월 16일 오후 3시 : 현대백화점 부천점
2014년 5월 말 ~ 6월 초 예정 : 현대백화점 울산점

비빔밥 데이 & 패밀리 데이 & 따말

아프리앙은 올 1월부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비빔밥 데이'는 각 부서의 임원에서 사원까지 조를 구성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이벤트이다. 타 부서 직원들과 편안하게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 직급을 떠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 업무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직원들 사이에서 제일 반응이 좋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업무 시간 내에 일을 마친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매주 목요일 아침 조회 시 '따뜻한 말 한마디(따.말)'를 진행해
직원들 간에 서로 칭찬 릴레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총무팀 조흥래 사원은 "어느 강의에서 들었던 기업문화가 인상적이었다.
그러한 기업문화를 아프리앙에 맞게 적용하고 싶었고 이러한 문화들이
정착되어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아프리앙이 되었으면 한다. 직원의
행복이 고객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더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욱 뜨거워진 인기 절정 화재의 드라마 이브자리 ON AIR!

공중파 방송 3사의 침구를 책임지는 이브자리! SBS<닥터 이방인>, KBS<빅맨>, MBC<왔다, 장보리>까지. 인기리에 방송 중인 화재의 드라마들 속에는 모두 이브자리 침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드라마 속 이브자리 침구 엿보기를 시작해보자.

왔다! 장보리

MBC
한복장인과 한복에 대한 열정을 그린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매주 토, 일 오후 8시 45분 방송
주연: 오연서, 이유리, 김지훈, 오창석

얼핏 보면 이 드라마는, 장보리라는 무식하고 천방지축인 엽기녀를 사람답게 길들이는 이야기처럼 보이나, 사실은 장보리라는 때문지 않은 순수녀를 통해 부와 명예에 사로잡힌 모순적인 인간들이 진짜 사람답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피붙이지만 서로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엄마와 딸, 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슴으로 맺은 엄마와 딸이 어떻게 화해하고 진짜 모녀가 되는가를 쫓아가면서 '진정한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다소 상투적인 문제를 감동과 따뜻함으로 그려내는 드라마이다.

빅맨

KBS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들만의 세상과 맞서는 감성 영웅의 탄생
〈빅맨〉
매주 월, 화 오후 10시 00분 방송
주연: 강지환, 이다희, 최다니엘, 정소민

이 드라마에서 영웅은 하늘을 날고 악인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강력 파워의 슈퍼맨이 아니다. 고아로 태어나 세상에서 천대받고 살아온 남자다. 배경도 학력도 없다. 그래서 보잘 것 없지만, 그래서 정겹다. 그 허접쓰레기는.. '또 다른 세상'과 맞서 우리의 영웅이 된다

닥터 이방인

KBS
우리들 모든 이방인들의 삶을 담은 드라마
〈닥터 이방인〉
매주 월, 화 오후 10시 방송
주연: 이종석, 박해진, 진세연, 강소라

병원의 진짜 주인은 환자라고 믿는 이방인 의사, 환자는 그저 병원을 스쳐가는 손님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통렬한 일침을 가한다. 환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의 진심과 열정은 지금까지 봐왔던 의학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것이다. 사랑, 도전, 좌절, 성장 등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담고 있는 '닥터 이방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 모든 이방인들의 삶을 담은 드라마다.



마르세
플라워 패턴을 모던한 감성으로 표현하였으며 부드러운 컬러의 잔잔함이 포근함과 안정감을 선사한다. 혼수 고객과 싱글 여성들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튀지 않는 꽃무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마이레이디
젊은 감성의 꽃밭을 연상시키며, 프릴의 레이스가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킨 상품이다. 소녀의 감성을 담은 패턴이라 딸아이의 공주방을 꾸며주기에 안성맞춤이다. 화이트 가구나 내추럴 톤의 원목가구 등의 침대에 잘 어울리며 방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하버드 슈룩
하늘과 푸른 들이 맞닿아 있는 듯한 감각적인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잔잔한 체크 패턴으로 그레데이션 컬러는 더욱 화사한 느낌을 준다. 20~30대 젊은 감성의 싱글층에게도 권할 수 있는 제품으로 면 60수 사틴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광택감과 터치감이 우수하다.



어프라이즈
실의 울이 풀린 느낌을 스트라이프로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블루 컬러는 젊은 감성을 자극하며 특히 남성 방을 꾸미기 안성맞춤이라 남성 방이나 아들방을 꾸미기 원하는 고객을 위한 제품으로 중성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혼수층에게도 추천할만한 상품이다.



바니스
자연의 모티브가 소프트한 감성의 플라워로 표현된 상품이다. 파스텔컬러 위의 화이트 플라워가 순수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섬세한 레이스를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하였으며, 화이트 잔 꽃무늬의 코디 베개로 더욱 세련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하버드크레마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도회적인 모던한 감성의 체크 디자인으로 10대 학생뿐만 아니라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20~30대 젊은 감성의 싱글층에게도 권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부드러움과 탁월한 수분조절 능력이 있는 텐셀 충전물을 사용하여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닐스
실크 같은 부드러운 촉감의 모달소재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쾌적하고 부드럽다. 숲 속에서 휴식을 취하듯 자연의 풀냄새와 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내추럴한 베딩으로 언제나 봄의 기운을 침실에 연출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코코로렌
요즘 젊은 감성의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많은 잔꽃 스타일로 소프트한 블루와 화이트 코디의 플라워패턴이 로맨틱하면서도 귀여운 여성스러움을 연출해주는 상품이다. 베개커버와 이불커버 머릿단에 섬세한 토션 레이스를 달아 더욱 고급스럽다.



헤스티아
스케일이 큰 클래식 문양과 모던 감성의 적절한 조화로 웅장함과 화려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상품입니다. 마치 황실의 이불을 보는 듯한 골드톤의 색감은 클래식한 가구는 물론 현대적인 가구에도 잘 어울리는 예단 상품으로 추천할만한 상품입니다.

청춘의 열정,

서로를
응원하다

6월의 칭찬 주인공
백관우 사원, 어윤지 사원, 조선영 사원



스무 살!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가 아닐까.

옛 말씀에 남자는 스무 살을 약관(弱冠),

여자는 방년(芳年)이라 하였다.

남자는 갓을 쓸 만큼 어른이 되었고,

여자는 활짝 핀 꽃처럼

피어나는 때라는 뜻이다.

요즘 시대야 사회적인 역할을

성별로 국한하지 않으니,

스무 살은 꽃처럼 아름다우면서

사회적인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멋진 나이이리라.

안녕하세요! 세 분 모두 회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3년도 입사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각자 팀과 맡은 업무,
입사하게 된 계기 등을 위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백관우(이하 백). 안녕하세요. 저는 MD팀의 소품 파트에서
상품 입고 체크와 해외 업무 중 신용장 개설, 화물비 정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서OJT 기간에 MD와 재경
파트 중에 선택이 가능했는데 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어 MD팀을 쪽을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더 많았지만 팀원 분들이 잘 도와줘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낯선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어윤지(이하 어). 저는 총무팀에서 정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열심히 배운 회계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브자리에 오게 된
데에는 선생님들의 조언이 컸습니다. 가족 같으면서도
건실하고 활동이 많은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다녀보니
즐겁게 가족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와 인간적인 팀원 분들
덕분에 대기업이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2월 졸업식 때
따로 기안을 올려서 저희 동기들을 챙겨주신 점이 고맙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영(이하 조). 제 경우에는 영업 파트로 발령이 났다가
현재는 재경팀의 정산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가세 신고, 비용처리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다루어야 하는 숫자의 단위가 너무 커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웃음), 팀원 분들이 잘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입사는 아는 선배의 추천 때문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좋다,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등이었는데 들어와 보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습니다.

**다들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서로에 대한 칭찬이
궁금해집니다.**

백. 저는 어윤지 사우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첫인상은
좀 차갑게 느껴졌는데 알수록 너무 착하고 밝고 긍정적인
동료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말을 잘 한다는 점인데요.
짜임새 있게 발표도 잘하면서 매사에 항상 당당한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잘 웃기만 하지 말은 좀 못하는 편이라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올 초에 약간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게 회사에 오래오래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야, 내 옆에 오래 있어줘~^^



Victory

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습니다(웃음).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라 그런지 조선영 사우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조
사우는 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강하고, 항상 밝게 웃으며
애교도 많은데다, 뒷사람과 선배님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희 셋 모두 집이 인천인데,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잘 이겨내고
같이 회사 생활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아자! 파이팅!
조. 저는 백관우 사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재경팀이다 보니 백 사우가 종종 결제를 맡으러 오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이것저것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잘 대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야무진 모습
말고도 항상 잘 웃는 서글서글한 면도 가지고 있어 닮고
싶습니다. 항상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요즘 날도
더워지고 품평회 준비 때문에 다소 지쳐 보이는데 힘내서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원한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Passion

**마지막으로 스무 살 동기인 여러분들이 이브자리라는 회사에서
성취하고 싶은 미래나 포부에 대해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백.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각자
개인플레이가 많지 않을까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인적인 슬럼프가 와서 표정이 안 좋았는데,
대리님께서 세심하게 케치해주시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이나 주임님도 걸으로는 쿨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따뜻하게 잘해주는 분들이라 팀 전체를 통해 케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팀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오래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어. 다른 고졸 공채 후배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업무나 인간적인 면 모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यो. 누군가 나를 볼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배울 점이 많다 같이 일하고



Fight

싶다 그런 느낌을 주게끔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조. 저는 지금 직영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행사 등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 보이고 나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0년 뒤쯤에는 매장을
하나 운영해보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일단 점포에 대해
많이 공부해야겠고 회사 전략도 습득하고 저축도 많이(!)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영**

수면에서 숙면으로의 여정을 돕는다

이브자리 코디센 용산 아이파크몰점
주원경 점장

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면시간. 나머지 3분의 2의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수면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브자리는 개인에게 올바른 수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다. 바로 수면 컨설팅에 전문성을 더한 맞춤형 브랜드 ‘슬립앤슬립’이다. 백화점 매장 중에 최초로 슬립앤슬립 브랜드를 입점시킨 이브자리 코디센 용산 아이파크몰점을 탐방해 보았다.



안녕하세요. 매장 분위기도 그렇고 주원경 점장님의 인상도 그렇고 아주 활기차면서도 스마트한 느낌입니다. 매장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8년째 운영 중인 저희 매장은 속통 코너가 전문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매장 중에 최초로 슬립앤슬립 브랜드를 입점시켰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평대 이브자리 코디센 매장에 슬립앤슬립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한 테스트 매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장 중에서 디자인 브랜드가 가장 많이 입점해 있는데요. 특히 혼수용 디자인 가구들이 많아서 침구와 가구를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아주아주 적합한 매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근 CGV로 인해 주말에는 젊은 층의 방문율이 높고, 평일에는 전통적인 50~60대 고정 고객이 많은 편입니다.

점장님은 어떻게 해서 용산점을 맡게 되셨는지요?

저는 2012년 8월에 장교 공채로 입사하였습니다. 본사 영업팀에 소속되었다가 작년 7월에 용산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입사 계기는 상당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편입니다. 전역하기 전에 취업박람회에 들렀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개인적인 비전은 유통보다는 교육이나 인사 쪽에 두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인사담당자였고요. 아무튼 이브자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나 보자는 가벼운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김재현 기획팀 팀장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면접으로 유도를 하셨습니다. 첫 질문이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는데 팀장님께서 제 대답을 인상적으로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 면접에 합격하고 2차로 산행 면접에 임하면서 점차 이브자리만의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죠.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소개도 궁금한데요.

먼저, 박명민 매니저님은 소녀 같은 감성을 지녀 여성스러운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딱 부러지는 성격이지요. 매장이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계속 근무하신 분이라 아이파크 관계자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노련합니다. 다음은 홍경숙 매니저님인데요. 박 매니저님과 반대되는 판매 스타일이세요. 박 매니저님이 화려하게 치고 빠지는 일리라면 홍 매니저님은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타이슨이랄까요.(웃음). 심민호 매니저님은 아직 1개월 차이지만 굉장히 빠른 적응력과 분석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심교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와 재고관리에 탁월하죠. 마지막으로 1층 매대에 고정 근무 중인 유정민 매니저님은 투철한 책임의식 때문에 유반장이라고 불립니다. 직원분 모두가 대단한 열정과 에너지의 소유자들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슬립앤슬립 브랜드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요?

아직은 인지도가 낮고 가격적인 벽도 있지만 회사의 역량이 집중되었고 고객 반응도 좋아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슬립앤슬립은 쉽게 말하면 베는 것, 덮는 것, 까는 것까지 3가지를 고객의 체질과 특성에 맞춰 제안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컨설팅과 체험을 선진행하고 나서야 비로써 판매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죠. 구체적으로는 먼저 베개를 선택할

때 고객의 경추 깊이를 측정하여 높이와 형태, 소재를 정합니다. 이불은 보온성과 수면 흡수성, 경량성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베드 선택은 사용 장소, 지지력과 경도를 고려하게 되는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인터뷰 중에도 매장 전체에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혹시 인상적이었던 고객님과의 에피소드 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사실 저는 매니저분들과의 에피소드가 더 많은 편입니다. 하하. 팀워크와 친화력을 높여서 재미있게 일하자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야 고객에게도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에 백화점의 타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베개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80~90% 정도가 구매를 해주셨어요. 열정적인 브랜드 홍보가 곧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매니저님들과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까지는 슬립앤슬립 브랜드를 기준으로 매장 홍보와 준비를 확고히 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매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한 이브자리의 조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면산업의 전문가로서 비전을 갖고 수면의 질과 삶의 질에 대해 더 배우고 고민해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천 간석점
남현우 부점장

아이를 위한 아빠의 마음,

천 연 비 누 만 들 기



웰빙에 대한 관심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깊어지고 있다.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가 대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몸에 닿는 제품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자연 그대로의 천연원료를 사용한 세안제, 샴푸, 화장품 등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대형 마트의 조사에 의하면, 실리콘이나 방부제 등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샴푸와 린스의 매출이 전년대비 3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한다.

친환경 천연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군은 이미 소비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청결과 위생이 중요하고 보습과 아토피 문제도 매우 민감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순하고 몸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천연비누는 아이를 위한 대표적인 스킨케어 제품이다. 방부제와 인공적인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혹은 덜 들어 있기에)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가령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일반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토피에도 천연비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성제품 말고도 DIY를 해 볼 수 있는 책, 공방 등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 통신사 광고처럼 잘생겼다 잘생겼다 노래라도 불러야 할 판이다.

이 달의 체험 장소 플로라 천연비누

각종 천연재료, 에센셜 오일, 비누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도구, 재료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비누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교육원, 학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의 제조를 직접 교육하고 있다. 한국 천연 핸드메이드 협회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며 천연비누 화장품 제조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3동 303-6호 <플로라>
상담문의 02-2209-1077



체험 제품

MP(Melt Pour) 녹여붓기 비누

재료.

비누 베이스(코코넛 오일 주성분), 글리세린, 아로마 오일,
몰드(틀), 에탄올, 약재 or 곡물가루 or 허브가루

만들기 과정.

- 1 비누 베이스를 채 썰듯이 썬다.
- 2 1의 재료를 냄비에 넣고 가열해서 녹인다
(가스레인지의 경우는 낮은 불에서 가열).
이때 빨리 녹으라고 휘젓지 말고 천천히 녹여 준다.
- 3 컵에 비누 베이스 100그램 당 글리세린 3그램,
원하는 첨가물(약재 or 곡물가루 or 허브가루 등) 1~2그램,
아로마 오일 20방울 정도를 넣어준다.
첨가물의 경우 가령 진피(귤껍질)를 넣으면
피부재생, 상처치유, 아토피 등에 효과적이라는 식이다.
단, 아이용 비누를 만들 때는 가급적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
- 4 나무 스틱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만 휘저어 혼합해 준다.
- 5 원하는 틀에다 부어준 후 상온에서 20~30분 정도 굳힌다.
- 6 에탄올을 살짝 뿌려 표면의 거품을 제거한다.



체험 스케치

남현우 부점장은 초보 아빠이다. 이제 갓 80일이 된 남기윤 아가를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밤마다 2시간에 한번 꼴로 깨다 보니 피곤이 쌓일 대로 쌓여 '백일의 기적'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비록 몸은 힘들어도 아내와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대단했다. 이번 체험도 모유 수유를 하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 일반 바디 클렌저를 쓰는 아기에게 더 좋은 천연비누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열정 때문에 참여했다.

남성에게 천연비누 만들기는 다소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결과는 정 반대였다. 남현우 부점장의 경우 손재주가 없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손맛이 있고 아로마 오일과 첨가물을 고르는 재미도 있었다며 밝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는 아내와 함께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니 이번 체험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파랑새 증후군에 대처하는 직장인의 자세

동화 <파랑새>에서 주인공 톨톨과 마틸은 요정의 부탁을 받고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 떠난다. 많은 곳을 헤매던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집안 새장에 있던 새가 파랑새임을 깨닫게 된다. '파랑새 증후군(bluebird syndrome)'은 이 유명한 동화에서 유래한 병명으로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의 60%가 파랑새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조사되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글. 마케팅팀 민재용 과장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기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나둘씩 이뤄 나갈 때면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중국에 파견 나가 있을 때 3개월 정도만 통역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중국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게 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말도 잘 못 알아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 어느새 통역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직원과도 매우 친근하게 지낼 수 있었다. 또, MD팀에서 새로 생긴 마케팅팀으로 발령받았을 때에도 누구도 무엇을 하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경험 속에서 또 한번 나를 넘어서는 희열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지금도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설레게 되고 성공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힘을 낸다. 그러면서 숨 가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직장인이 아닐까.

취미생활 즐기기

지금은 직장과 육아로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난 참 배우는 걸 좋아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취미였던 것이다. 다행히 새벽형 인간이라 가능하면 이른 시간을 이용하여 수영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웠던 경험이 있다. 어쨌든 실력이지만 뜨개질도 참 좋아한다. 보통 주말을 이용하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한다거나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은 경치 좋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지겨우면 책을 읽기도 하는 시간을 즐겼다.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력이 늘진 않지만, 태교할 때도 남들은 겨우 배우면서 하는 것을 나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다. 여하튼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즐기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쯤 있다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것이 참 많다. 업무적으로는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를 읽어내는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옷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입혀보고 싶기도 하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직장과 사생활에서 찾고, 서로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만 있다면, 내가 바로 파랑새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OVERCOME

LIFESTYLE

My Little Garden

초록 식물로 꾸민 나만의 힐링 공간

무더위에 한층 가까워진 지금,
공간을 풍성하고 정감있게 만드는
초록 식물로부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속 작은 위안을 받아 보자.
집 안에서의 식물은 단지 관상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잘 자랄 수 있는 장소 또한 중요하다.
마음을 편안하게, 분위기를 온화하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자.



가족이 모이는
거실에 화분을 놓고 싶다.
어떤 게 좋을까?

주거공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실. 첫 화분이라면 포인트가 되게끔 크기가 큰 것을 고르자.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식물은 물론 화분이나 꽃병도 인테리어에 있어 중요한 소품이다. 무엇보다 거실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 소재나 디자인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또한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주요 활동 공간이다. 그래서 그 어떤 공간보다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탁월한 공기 정화 능력과 수분이 많아 키우기 쉬운 산세베리아, 포르알데히드를 정화시키는 능력으로 새집에 적합한 벤저민, 여름철 극성인 모기가 싫어하는 구문도 등을 선택해 보자.



심플한 디자인의 화분은 내추럴한 스타일은 물론
모던한 스타일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시크한 인테리어에는 흙의 질감을 살린 화분이나 메탈릭 한 소재의 화병 등
차분한 색감의 용기가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화분을 놓을 때는 공간의 면적을 고려하는 것이 포인트.
층고가 높거나 넓은 장소에는 키 큰 식물이 어울린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화분을 몇 개 더 놓아 휴양지 분위기로 꾸며도 좋다.

집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식물.
센스 있게 두는 요령이 있을까?

크기가 어중간한 식물이 있다면 액자나 의자와 함께 포컬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 식물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포인트가 될 만한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잎을 펼치며 자라는 식물이나 덩굴을 길게
늘어뜨려 리드미컬하게 보이는 식물은 존재감은 확실하지만 공간을
애매하게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덩굴 식물은 벽면이나 창틀에 놓아
장식한다면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둘 곳이 마땅하지 않은 작은
화분이 있다면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장식할 수 있다. 이때 화분 아래 작은
센터피스를 까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욕실 욕조에 앉아 바라보는
위치에 두면 힐링 효과가 상승할 것이다. 



부드러운 색감의 식물을 골라
투명한 유리 화분이나 밝은 색 화분과 곁들이면
공간을 싱그럽게 연출할 수 있다.



커다란 액자나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그 옆으로 화분과 의자를 놓아
삼각 레이아웃을 만들면
포컬 포인트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욕실은
흠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수경식물로 장식하여
쾌적하게 꾸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테리어 아이디어 350〉

〈인테리어 아이디어 350〉은 살고 싶은 집, 짓고 싶은 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350가지 집 꾸미기 아이디어를 상세히 소개하는 책이다. 디자이너가 동경하는 북유럽 스타일, 편히 쉴 수 있는 카페 스타일, 쉽게 질리지 않는 내추럴 스타일, 손때 묻은 가구의 온기를 담은 빈티지 스타일, 세련된 분위기의 모던 스타일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가구 선택과 배치, 그리고 좁은 집을 넓게 쓰는 수납에 관한 실속 아이디어까지 풍부한 사진과 함께 전한다. 이사를 앞둔 사람, 집을 새롭게 고쳐 짓고자 하는 사람, 언젠가 단독주택 주인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한 권이다.

사진 및 자료제공. (주)화산 문화사



보는 축구, 뛰는 축구

4년에 한 번,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심장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월드컵 시즌이다.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을 맞이해 우리 몸과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축구 본능’을 살펴보고 생활 속 운동으로 실천해 보자.

월드컵은 끝나도 축구는 계속될 테니까.

축구 황제 펠레는 축구를 ‘아름다운 게임(the beautiful game)’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축구의 아름다움은 곧 조화로움이다. 선수의 개인기, 코칭스태프의 전술, 그리고 팀워크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승리한다. 이 모든 요소들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체력이다.

축구는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단체 경기 중 하나로 동료들과의 경기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로 볼을 다룰 수가 있어 경기 기술이 매우 다양하며 많은 양의 달리기를 필요로 한다. 자연스럽게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오랜 시간 경기를 지속하는 동안 심폐지구력도

향상된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이용해 볼을 다루기 때문에 몸의 순발력과 협업 기능이 발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한편으로 축구는 ‘모두’의 경기다. 그라운드를 달리는 선수들은 물론 합성을 지르며 거리 응원에 동참하는 이들, 치킨과 캔맥주를 먹고 마시며 TV를 보며 응원하는 모든 이들 역시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축구를 통해 우리는 분명 하나가 되며,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는 또 하나의 인생과 같다. 삶이 아이러니의 연속이듯, 축구도 수많은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가운데 승리의 골을 향해 서서히 단련되어 가는 법이다. **29**

최초의 축구공은 무엇이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른 풀을 뭉쳐서 공을 찼고, 중세 시대가 되면서 돼지의 방광에 바람을 넣어서 공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후 가죽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랫동안 가죽으로 만든 축구공이 사랑받았지만, 1986년 FIFA 멕시코 월드컵부터는 비가 와도 무게에 변화가 없는 합성 재료가 쓰이고 있다.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Brazuca)!

‘브라질 사람과 낙천적인 브라질 사람 특유의 삶’을 뜻하는 브라주카는 FIFA 월드컵 공인구 최초로 축구팬들의 투표를 통해 명칭이 결정되었다. 빨강, 초록, 파랑 등 풍부한 색채가 들어갔으며, 구불구불한 공의 문양은 브라질을 가로지르는 아마존 강과 브라질 원주민이 사용하는 전통 팔찌인 소원 팔찌를 형상화했다. 기존보다 2개 줄어든 6개의 패널로 만들어져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

사진 Ververidis Vasilis / Shutterstock.com



FOOTBALL GLOSSARY

“축구 좀 아시는군요?” 알아두면 유용한 풋볼디피아

축구는 상식의 스포츠다. 축구를 더욱 축구답게 하는 규칙과 상식들을 알고 나면 월드컵이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1. 헤트릭 (hat-Trick)

한 명의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을 넣는 것을 뜻한다. 헤트릭의 어원은 영국의 크리켓 경기에서 세 명의 타자를 연속 아웃시킨 투수에게 새 모자를 선물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오래전에는 선수에게만 헤트릭을 인정했지만 요즘은 한 경기에 세 골을 넣은 선수를 통칭한다.

2. 프리킥 (free kick)

반칙을 당한 팀은 그 지점에서 상대 선수의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프리킥이라 한다. 프리킥은 경기 도중 한 팀이 반칙을 가했을 때 반칙을 당한 상대 팀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인 셈이다. 반칙의 종류 및 반칙이 일어난 위치 등에 따라 직접프리킥과 간접프리킥으로 구분된다.

직접프리킥(Direct Free kick)

다른 선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슈팅을 시도해도 득점으로 인정된다. 즉, 직접 슈팅이나 동료 선수를 향한 패스가 모두 가능하다. 간접프리킥(Indirect Free kick) 반드시 다른 선수의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맞고 들어가야만 골로 인정된다.

3. 페널티킥 (penalty kick)

페널티 에어리어 (penalty area) 안에서 수비측 선수가 고의적으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했을 경우, 또는 무승부로 끝난 경기에서 승부차기를 할 때 공격 팀이 페널티마크 위에 볼을 올려놓고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차는 킥이다. 이때 볼을 차는 선수와 골키퍼를 제외한 다른 선수는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기에 골 성공률이 매우 높다.



4. 오프사이드 (off-side)

공격수가 볼과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상대방의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밀고 당기는 공간 싸움인 축구를 축구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프사이드 규칙이다.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인해 골이 될 수도, 노골로 선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축구의 묘미!

5. 크랙 (crack)

혼자만의 힘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 기량이 뛰어난 최고의 선수를 뜻한다. 크랙은 '깨다, 부수다, 균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익숙하지만, 축구에서의 뛰어난 선수를 표현하는 크랙의 어원은 '빠어난 준마'라는 의미를 가진 스페인어. 상대팀의 전술과 경기의 균형을 깨뜨리는 환상적인 움직임을 지닌 크랙의 유무는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포인트. 크랙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축구선수로는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있다.

6. 핸드볼 (handball)

축구가 재미있는 이유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쉽고 편한 도구인 손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축구 선수가 공을 손으로 건드리거나 잡는 등의 반칙 상황을 핸드볼이라 하는데, 이 경우 상대 팀에겐 반칙이 일어난 위치에 따라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핸드볼 반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고의성'인데,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서 가장 많은 오심을 야기하며,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판정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규칙이기도 하다.

7. 트래핑 (trapping) / 드리블 (dribble)

트래핑은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 즉, 발등, 발바닥, 발의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대퇴, 복부, 가슴, 머리 등을 이용하여 날아오는 공을 멈추게 하는 기술이다. 반면 드리블은 공을 자유자재로 몰고 다니면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고, 슛을 하거나 패스를 할 때 필요한 기술을 뜻한다. 쉽게 말해 트래핑은 날아오는 공을 멈추게 하고 싶을 때, 드리블은 공을 끌고 나갈 때 사용한다.

DRESS CODE

실전 축구!

선수를 위한 의상 점검

반바지에 티셔츠, 아무렇게나 입어도 공만 잘 차면 되지만, 이왕 축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언젠가는 제대로 갖춰서 입어 보자. FIFA가 정한 엄격한 축구 복장의 정석. 일단 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뿐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멋있다.

3. 축구화 (soccer shoe)

가죽, 연성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신발. 밑창에는 징이 붙어 있어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그라운드의 성향에 따라 징의 탈부착이 가능한 나사형도 있다.

4. 팀셔츠 (team shirt)

상체에 입는 신축성 있는 의류. 팀의 엠블럼, 선수의 이름, 번호가 새겨져 있다. 소매가 없는 유니폼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반바지 (shorts)

짧고 가벼운 바지. 쇼트 안에 보온용 바지나 타이즈를 덧입을 경우 반드시 쇼트의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1. 정강이 보호대 (shin guard)

단단한 플라스틱 성형물로 된 장비. 깊은 태클과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선수의 다리를 보호하므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양말 (sock)

발부터 무릎까지 신는 의류. 정강이 보호대를 완전히 덮는 것이 원칙이다.



HOW TO

경기력은 높이고 부상은 방지하는, 축구 스트레칭!

축구는 전신운동인 동시에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다. 빠른 속도감으로 부상의 위험도 많으므로, 경기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1. 상체 세워 뒷다리 접기

골반을 중심으로 한쪽 발은 앞으로, 다른 발은 뒤로 접은 채 상체를 세워 편히 앉는다. 한 손으로 뒤로 접은 발목을 서서히 당겨 근육을 늘려준다.

2. 상체 젖히고 다리 뻗어 접기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다음 한 쪽 다리를 뒤로 접는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서서히 뒤로 젖힌다.

3. 앉아서 뒤통치 세우기

두 손은 앞쪽 바닥을 짚고 무릎을 접어 앉는다. 두 손에 몸의 체중을 약간 실어주며 뒤통치를 서서히 올려준다.

도전!

FC 이브자리 가입 안내

이브자리는 심신의 직원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화합을 위해 FC 이브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기 창단으로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FC 이브자리에서 내 안에 잠재된 축구 본능을 맘껏 일깨워 보세요!

가입 신청 및 문의

FC 이브자리 회장 형성수
02-6490-3209
sshyeong0420@evezary.co.kr

간편하게 먹는 차가운 별미

파스타 프레다



어느새 부쩍 더워진 날씨 때문에 자칫 입맛을 잃기 쉬운 요즘이다. 밥맛이 없을 때 흔히 찾는 것이 면이지만 이걸 차갑게 해 먹으면 더욱 식욕을 돋우게 된다. 냉면이나 냉콩국수가 대표적인 메뉴이다.

기왕이면 파스타를 차갑게 조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파스타는 피자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주식으로 따뜻하게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계절에 맞춰 색다르게 즐겨 보는 것도 흥미롭다. 여기서 소개하는 파스타 프레다(Pasta Fredda)는 싱싱한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에 향긋한 바질이 더해져 식감을 자극한다. 잃어버린 입맛을 돋워주는 이색 면 요리로 손색이 없다.

재료

숫파스타(푸질리) 200g, 후레쉬 모짜렐라 1개(150g), 방물 토마토 20개, 바질 1팩(10g), 올리브오일(엑스트라 버진) 100ml,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조리과정

1. 파스타는 소금물에 10분간 삶은 다음 찬물에 행군 후 체에 걸러 물기를 빼준다.
2. 모짜렐라는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다.
3. 토마토는 반으로 자른다.
4. 믹싱볼에 1, 2, 3의 준비된 자료를 넣고 바질, 소금, 후추 간을 한다.
(파스타를 소금물에 삶았기 때문에 약간의 간은 되어 있으므로 소금 간은 나중에 한다)
5. 접시에 담고 남은 바질을 이용해 장식한다.

박인규 셰프

이탈리아 밀라노의 요리 학교와 이탈리아 조리 협회 마스터 코스를 수료 후 국제 조리대회에서는 로마 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드라마 <파스타>에서 요리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가로수길 레시피>, <셰프 아빠의 아이 식탁>의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는 대학로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핏제리아오에서 총괄 셰프로 활약하고 있다.



세계 문화 인스턴트 기행



글. 한은형 소설가

인스턴트는 나쁜가? 설령 음식일지라도 그렇기만 한지 잘 모르겠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 겪지 않는 것보다는 겪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짧고도 짧은 다른 나라로의 여행들이다. 즉각적이고 간편한.

1786년, 피테는 이탈리아로 떠난다. 37세 되던 해다. 그렇게 일 년 십 개월을 이탈리아에서 머물고 『이탈리아 기행』을 펴낸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다. “나는 새벽 3시에 카를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오소리 가죽 가방 하나만을 든 채였다. 로마의 유적과 나폴리와 시칠리아 섬을 답사하고, 유명한 그림이나 조상(彫像)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의 대작 『파우스트』는 이때 구상되었다고 전해진다. 피테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기행을 할 수 있다. 기행(紀行).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말한다. 어디에도 시간을 명시하는 정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런 기행은 어떨까. 떠났다 돌아오기까지 만나절이면 되는.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들로 가는 것이다. 그 나라의 문화원으로. 무언가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요리를 먹거나 배울 수 있고, 영화를 보거나 그 나라의 옷을 입어본다거나 하며. 이른바, 인스턴트 기행이다.

초승달과 별

이스탄불 문화원

우리나라에 터키 문화원은 없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터키라는 국가의 문화원이되, 이름은 ‘이스탄불 문화원’이기 때문.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문화원을 열면서 ‘대한민국 문화원’이 아니라 ‘서울 문화원’이라고 이름 짓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

도서와 영상, 전시 등을 볼 수 있고, 요리 강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친근하다. 한 달 코스로 등록해야 수강할 수 있다. 한 달에 4번 열린다. 투르크족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화강좌도 열린다고

홈페이지	http://www.turkey.or.kr/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 1동 629-6
이용 시간	평일과 토요일 10시~14시(사전 예약 필수)
이색 프로그램	터키식 티파티, 라마단 저녁식사 파티를 연다.
Tip	터키 국기에 달과 별이 있는 걸 아는가? 그렇다면 달은 어떤 달인지도 아는가? 새초롬한 초승달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국기를 '아이 일디즈(ay yıldız)'라고 부른다. '달과 별'이라는 애칭이다.

프렌치 시크

프랑스 문화원

1968년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외국 문화원. 불어 강좌를 들을 수 있고 프랑스 도서나 잡지, 신문,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카페도 있다. 음식과 차를 판다. 이름은 ‘카페 데 자르(café des arts)’.

‘씨네 프랑스’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매달 정해진 테마에 맞는 영화를 상영한다 5월은 장 뤽 고다르와 여배우들’. 안나 카리나, 브리짓 바르도, 미레이유 다르크, 진 세버그가 출연한 영화들을 상영했다. 6월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영화는 프랑스 문화원이 아닌 아트나인에서 상영한다. 언제나, 화요일 8시.

홈페이지	http://www.institutfrancais-seoul.com/ko
위치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우리빌딩 18층
이용 시간	월~토 11시~21시 (카페는 12시~18시 30분)
프로그램	프랑스 와인 강좌, 독서 클럽, 씨네 프랑스, 전문가 초청 강연회
Tip	지속적인 프랑스 문화 체험에 좋다. 60여 종의 기 간행물과 만여 권 도서 비치

피오르 협곡

북유럽 문화원

한때 삼각지역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4호선에서 6호선으로 환승하는 공간을. 기다란 무빙 위크 양옆으로 노르웨이의 사진들을 붙여놓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피오르 협곡, 푸른 빙하, 오로라 등이 있었다. 북유럽에 내내 홀려 있던 시간이었다. 아마 언젠가는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북유럽 문화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양평이다. 어쩐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에도 폭설이 내리곤 하는 강원도 끝짜기 어디쯤에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입니까. 종종 북유럽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다.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ordicseoul
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623
이용 시간	11시~18시
특징	사실 이곳은 상업 공간에 가깝다. 1층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운영하는 공간인 것. 일부로 가기보다는 양평에 갈 일이 있을 때 가면 좋을 것 같다. 커피를 잘 하는 곳이니.

태양신의 나라

중남미 문화원

중남미 사람들은 태양을 믿었다.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이 융성했던 땅. 다른 말로,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와 중미, 카리브 해역 및 남미대륙의 국가들을 말한다. 이 땅에 반한 전직 외교관이 사재를 털어 중남미 문화원을 만들었다. 이곳은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빠에야와 타코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빠에야라고? 중남미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니 음식이 전해지긴 했을 터. 중남미 스타일로 변한 빠에야가 궁금하다. 중남미화된 스페인 음식을 부르는 명칭 같은 건 없는 걸까. 일본화된 서양 음식을 경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홈페이지	http://www.latina.or.kr/
위치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302-1
이용 시간	연중무휴. 10시~18시(11~3월은 17시 폐장)
이벤트 및 전시	어린이를 위한 아즈텍, 마야, 잉카로 떠나는 체험 프로그램(매주 토요일 오후 3시)
Tip	추리소설가 온다 리쿠의 중남미 유적지를 찾아가는 흥미로운 여행기가 출판되어 있다. 『메갈로마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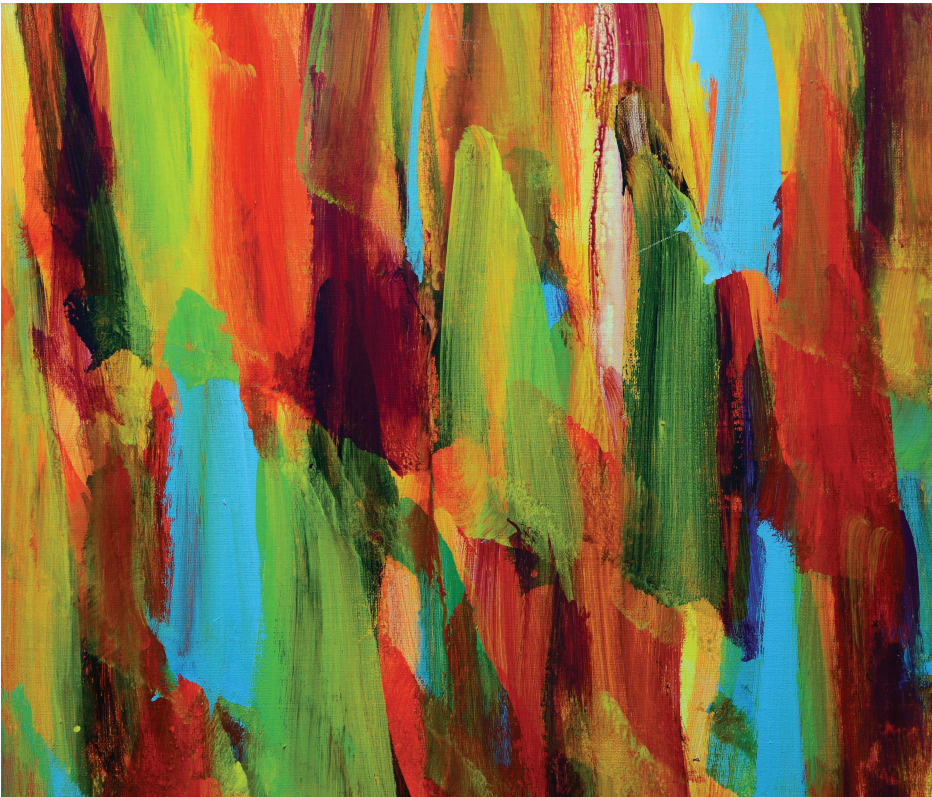
황찬수 개인전

삼성동 이브갤러리
 2014년 5월 29 - 6월 17일

황찬수 작가는 순수 추상미술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발전시켜가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선 선명한 칼라의 붓 터치가 자유분방한 힘과 리드미컬한 소리를 내는듯한 신선한 감성의 충격을 느낄 수 있다. 작가의 깊은 예술혼과 열정이 녹아들어 응축된 내면의 세계를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내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며, 춤추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준다. 혼돈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순수 추상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가의 의미 있는 작품세계는 시사하는 바와 울림이 클 것이다.



With Joy-1202
 acrylic on canvas, 154x219, 2012



Sunny Autumn Morning-1001
 acrylic on canvas, 50x50cm, 2010



Space and Memory-1106
 acrylic on canvas, 140x140cm, 2011

색채의 향연

평론 최승훈(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장)

황찬수의 그림은 색채의 향연이다. 다양한 색채는 자연스런 붓놀림에 실려 시시각각 변화하는 톤을 보여주며 화면 전체에 펼쳐진다. 그가 색채를 구사함에서도 깊이 감을 찾는 것은 단순한 색채의 가시적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신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또한 여러 색채가 조합하여 한 tone을 형성함으로써 보여지는 화면도 화면이지만, 그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연한 붓질 행위는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는 음악적 연주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중략)

황찬수는 끝없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작가의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에겐 반복되는 주제도 정형화하는 형식도 늘 경계의 대상이었을 게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 체질을 타고 난다. 취향이 그러하며 음식과 성격, 태도에서 남들과 다른 특징을 표출하기 마련이다. 그러하다 보니 그에게도 그다운 체취가 묻어나는 그림이 형성된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려는 황찬수의 ‘결’ 그림이다. 이 결이란 바람결, 물결, 숨결, 마음결에서의 결이다. 섬세하게 다가가야만 감지될 수 있는 것으로 시각적 대상이 아닌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다. 이 결은 아주 근본적인 지점에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설정한다면, 어느 가시적, 가촉적 대상을 두고 하는 예술행위가 아닌 황찬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리하여 그의 그림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가 끝인지 묻기보다는 영겁의 시간 속에서의 결을 개인적 일상 속에서 무수한 만남을 통하여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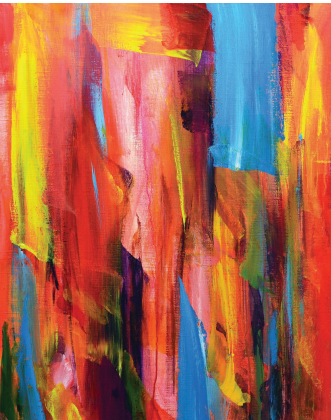
오영



April Breeze #1
 acrylic on canvas, 140x140cm, 2011



Missing You-0601
 acrylic on canvas, 130x130cm, 2006



From nature-1301 (detail)
 acrylic on canvas, 117x92cm, 2013

양말의 변신은 무죄

좋은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다. 패션잡지나 신발 브랜드 홍보에도 곧잘 인용되는 서양 속담이다. 사실 구두를 돋보이게 하는 표현들은 제법 많은 편이다. 인체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탱해 주는 만큼 그 정도 대접은 당연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양말은 어떨까? 어찌 보면 구두보다 더 굵은 역할을 해주는 그들의 변신에 주목해 본다.

자료 협조: 편샵 (www.funshop.co.kr)

무압박 신사의 양말

양말(洋襪)의 한자를 보면 '서양식 버전'이라는 뜻이다. 버전과 양말의 차이점은 지극히 많겠지만 이 상품의 경우 압박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양말에도 버전의 장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무압박과 무봉재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Cotton 80%, Polyamide 17%, Elastane 3%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손봉조 방식으로 발가락의 이물감을 최소화하였고, 168침을 사용하여 얇으면서도 튼튼한 맛이 있다. 오래 신어도 종아리에 자국이 덜하고 편안하다.



Sensefoot 3/4 키높이 양말 깔창

이 제품은 양말이 아닌 깔창이다. 그런데 양말과 신발 사이에 들어가는 깔창이 아니라 발바닥과 양말 사이, 그러니까 양말 안에 넣는 깔창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가령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게 되느라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안성맞춤인 아이템. 이중구조로 뒤꿈치에만 볼륨을 주었기 때문에 앞꿈치는 그대로 신발 사이즈도 키울 필요가 없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품질적인 면도 만족시켰다. 



보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

최근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고귀한 인명을 잃은 것에 대한 충격과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곳곳에 만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마인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가 19만 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인원이 9만 2000명, 화재 발생건수는 4만여 건이었다. 기타 다른 분야의 사고들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결국 사고는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으며,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가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쉽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다고 봐야 한다.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MIND



선진국의 안전사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78%에 그치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는 84~98%에 이른다. 뒷좌석은 훨씬 심각해서 선진국이 74~97%에 이르는 반면 우리는 5%에 불과하다. 캐나다 등에서는 아파트도 예고 없이 화재대피훈련을 해서 비상벨이 울리면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 질서 정연하게 대피한다.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 교실에서의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제 도로환경에 나가 실전 훈련을 치르도록 한다. 여러 본받을 점이 많을 듯 하다.

EXAMPLE



EDUCATION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훈련

다행히 우리에게도 안전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체험과 실습 위주로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다. 경험해 보지 않은 위험 앞에서 형식적인 안전 지식에 기대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사고에 따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달해서 몸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위험의 실체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지기를 기대한다. 

잠자는 집속의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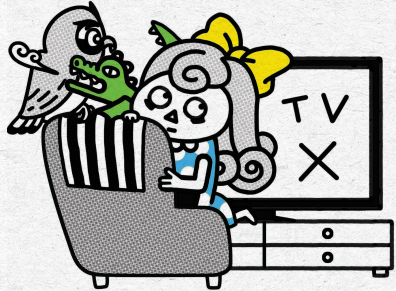
오늘은 동화 한편을 들려 드릴게요. 옛날, 옛날. 아니, 오늘날. 숲 속의 아니, 집속의. 미녀가 아니 아니,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잠을 잘 못 잤답니다. 으음. 잠깐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오늘날 집속의 잠을 잘 못 자는 아이가 있었어요.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것도 아닌데 아이는 왜 잠을 잘 못 잤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꼭 잘 수 있을지 이제부터 동화의 나라 속으로 출발~! 그별. 김은경

낮에는
신나게 뛰어놀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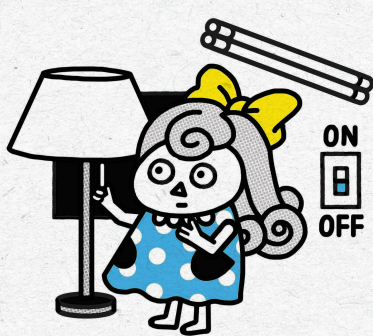
낮에 쬔 햇볕은 아이를 꼭 잘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예요. 햇볕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숙면을 취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햇볕을 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 중 최소 30분 이상은 바깥에서 뛰어놀며 햇볕을 듬뿍 쬔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30분간 햇볕 마사지를 받아도 좋습니다.

TV와 컴퓨터를
줄여주세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TV를 많이 보는 아이들은 필요한 적정 수면시간보다 부족하게 잠을 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시간의 TV 소음은 아이를 흥분하게 만들고, 화면에서 나오는 환한 불빛은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적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일찍 잠드는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른 저녁시간부터 TV와 컴퓨터를 모조리 꺼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TV와 컴퓨터 대신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거나 가벼운 놀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조명을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밤이 되면 아이들이 형광등에 노출되는 시간을 잘 조절해 줘야 합니다. 형광등은 빠른 속도로 점멸을 반복하고 파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우리 뇌로 하여금 밤을 낮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잠을 재우기에 앞서 시간을 두고 미리 형광등부터 꺼주세요. 조명은 저녁에는 되도록 조도를 낮춰서 어둡게. 수면 중에는 최대한 캄캄하게 해주는 것이 생체시계를 조절하여 수면을 유도하는데 좋습니다.

잠자기를 일상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시켜 주세요



아이는 잠을 잘 들도록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놓고, 때가 되면 잠자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잠자리 의식을 매일 같이 반복하게 되면, 아이는 잠을 자는 일련의 행동을 하나의 생활습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혹시 아프거나 여행을 다녀온 뒤 수면습관이 흐트러지게 되더라도 다시 원칙을 지켜 수면 패턴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People | 칭찬합시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의 동기인 조선영, 백관우, 어윤지 사원. 같은 학교 출신에 평소 우애도 돈독해서 그런지 너무나 친밀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세 분 모두가 나이답게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침 월드컵 응원단 붉은 악마 컨셉으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더욱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동기 사랑 영원하기를!

Good morning, Good bedding 2014년 6월호를 보시고 '칭찬합시다' 코너와 '임직원 체험기' 코너에 신청 e-mail을 보내주세요. '칭찬합시다' 코너에 선정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14년 6월 1일 ~ 6월 15일
이메일 jilee0307@vezary.co.kr
당첨자 발표 2014년 6월 15일 이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Together | 임직원 체험기

갓 80일 된 아이를 가진 초보 아빠 남현우 부점장(간석점)과 천연비누 만들기예 도전해 보았습니다. 초보도 만들기 쉬운 녹여붓기 방식이라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체험이 모두 끝난 후에는 취재 스태프가 몰려들어 비누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원하는 첨가물을 넣고 각자의 개성적인 비누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불소재도 결혼처럼 환상적인 **결합**이 있지 않을까?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김윤주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유지형

하루 종일 이불만 생각하는 이브자리 연구원, 그들의 궁금증에서 최상의 혼수이불이 탄생했습니다



모달 + 콤팩트면 라인업



모달 + 콤팩트면 에코빌



텐셀 + 수피마면 바이오나

이불소재에도 결혼처럼 서로 잘 맞는 결합이 있죠. 실크같이 부드러운 촉감의 모달에 내구성을 높인 콤팩트면, 늘 촉촉하게 수분을 조절해주는 텐셀과 뛰어난 광택의 부드러운 수피마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기능은 더욱 좋아지고, 새 이불 느낌은 오래오래 유지되는 이브자리만의 혼수이불 신혼부부에게 추천합니다.

수면체질에 맞춘 힐링침구 **이브자리**